
2026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시행계획

근거 :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(2024~2028)

2026. 4.



농림축산식품부
식량산업과

순서

I. 계획의 수립 배경	1
--------------------	---

II. 2025년 추진실적	3
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I. 보완 필요 주요사항	12
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IV.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	14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V. 추진 일정	24
----------------	----

* 불임: 제3차 쌀가공산업육성 및 쌀이용촉진 기본계획 추진과제

I. 계획의 수립배경

1 수립 배경

-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」('24.1월)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필요
 - (법적근거)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 - ※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쌀 소비는 감소 중이나 쌀 가공산업 시장은 확대 추세로, K-Food 인기, 간편식 수요 증가 등 쌀가공산업 성장 기회요인 상존
 - 1인 가구 증가, 식문화 변화 등으로 밥쌀 소비가 감소*한 반면, 간편·건강식 등 쌀 가공식품 소비 증가**로 시장이 지속 확대***될 전망
 - *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밥쌀 소비량(kg) : ('16) 61.9 → ('20) 57.7 → ('25) 53.9
 - ** 사업체 부문 1인당 연간 가공용쌀(주정용 제외) 소비량(kg) : ('16) 8.4 → ('20) 9.5 → ('25) 13.5
 - *** 쌀가공식품 매출액(조원) : ('18) 6.1 → ('20) 7.3 → ('25) 8.4
 -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확대와 새벽배송, 냉동배송 등 쌀 가공식품 구매 접근성 향상
- 다만, 식품 업계의 정부양곡 의존도(50% 이상)가 높아 쌀가공산업 성장이 민간 신곡 소비확대로 충분이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
 - * 가공용 정부양곡 의존도(%) : ('16) 50.3 → ('20) 61.5 → ('25) 50.6

2 추진 경과

- ('11.11월) 쌀가공산업법 제정('12.5월 시행)
- ('14.10월) 제1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
 - *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'14~'18)
- ('19.6월) 제2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
 - *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'19~'23)
- ('24.1월) 제3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
 - * '24년 시행계획 수립·시행('24.3.29.), '25년 시행계획 수립·시행('25.5.29.)

3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과제

목표

◇ 쌀가공산업 성장세의 안정적인 견인과 국내·외 시장다각화로 쌀 소비기반 확충

- [시장확대] 매출액: ('22) 8.4조원 → ('28) 17(연 12%↑)
- [수급균형] 쌀 소비량(주정용 제외): ('22) 57만톤 → ('28) 72(연 4%↑)
- [수출강화] 수출액: ('22) 180백만\$ → ('28) 400(연 14%↑)

세부 추진 과제

① 미래 유망분야 집중 육성으로 성장동력 마련

- 쌀가공산업 10대 유망품목 집중 육성
-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

② 국내·외 수요기반 확대

- 글루텐프리 인증기업 육성
- K-Food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
- 소비자 구매 접점·경험 증대

③ 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로 경쟁력 제고

- 원료 공급체계 강화
 - 정부양곡 안정조달 및 품질 향상
 - 민간 가공용쌀 생산·유통 촉진
- 시설·경영 개선 지원
- 10대 산업 혁신기술 R&D 추진
- 정확한 통계·정보 제공

II. 2025년 추진실적

1 미래 유망분야 집중 육성으로 성장동력 마련

[1] 쌀가공산업 유망품목 집중 육성

- 품종 차별화를 통한 용도별 맞춤형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산업화 추진
 - (가공밥류) 식품기업 협업으로 고품질 품종(영호진미_CJ제일제당*) 기반 프리미엄 무균즉석밥 개발 및 상용화 마련
 - * '25년 쌀 사용량: 5,000톤^{예천RPC}, 3,000톤^{구미RPC} 생산 → 햇반_찰기가득쌀밥^{CJ} 판매
 - (죽류) 맞춤형 시장 확대를 위한 생산·유통업체와 제품개발 협업*
 - * 미호: 편의식(HMR) 및 레토르트 적합(구조 안정성 및 재가열 후 점도 유지력 양호)
 - ** 밀양436호: 죽용 적합(낮은 냉·해동 에너지 요구, 재가열 후 고점도 유지)
-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쌀가공품 선정 및 유통지원으로 유망품목 발굴
 -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MD·전문가·소비자 평가, 현장 위생평가 등 단계를 거쳐 대표상품(쌀플러스*) 12점** 선정
 - * 쌀플러스: 우수 쌀가공품 대표브랜드 명칭으로 품평회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상품에 부여
 - ** 쌀떡류(3점), 가공밥류(3점), 주류·음료(3점), 면·빵·과자류(3점)
 - 국내 대표되는 오픈마켓, 주류전문몰, 오프라인 마트와 제휴*하여 '쌀플러스 미식회' 기획전, 라이브커머스 등 쌀가공품 입점·특화 홍보**
 - * 유통채널: 온라인_11번가, 솔마켓(주류전문몰), 오프라인_솔마켓 보틀샵(오프라인), GS더프레시
 - ** 기획전 특화 입점 품목 : ('24) 65개 가공품목 → ('25) 96개 가공품목 (전년 比 47.7%↑)
- 대내외 참여형 쌀소비촉진 행사 확대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
 - 쌀 중심의 아침밥 먹기 운동 붐 확산을 위해 지자체, 유관기관 등 업무 협약*, 데이마케팅** 참여 행사, 범농협 계통사무소(1,285개소) 홍보 확대
 - * 협약기관: KLPGA, 대한체육회, 부산시교육청, 대한영양사협회, 한국배구연맹
 - ** 데이마케팅: 행복밥차 운영, 백설기데이(3.14.), 쌀의날(8.14.), 가래떡데이(11.11.)

□ 기업·기관과 연계한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

- 유망 쌀가공식품 판로 및 홍보* 운영, 디자인 및 연구개발**을 통한 특화상품 출시 등으로 국내외 소비자 맞춤형 수요 충족

* (농협) 2025 K-라이스페스타(쌀가공품·전통주 250여개 부스), 계통매장 쌀가공품 전용매대(12개소) 설치 / (가공협회) 2025 라이스쇼(51개 제품) / (aT) 미국, 일본, 홍콩 등 해외 소비자 대상 홍보 및 판촉 행사(5회)

** (국내) 농협-(주)화요 협업 프리미엄 증류주 「米술시간」 제품개발
(국외) 중국 전용 쌀가공품(7개 제품) 브랜드 네이밍, 로고, 포장지 등 개발

[2]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

□ 가루쌀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전문교육 및 현장기술 지원 강화

- 가루쌀 안정생산 매뉴얼 등 제작·배부, 민간전문가 등 활용 재배 농업인 맞춤형 교육*, 지역별·수준별 현장기술 지원** 등 강화

* 생산단지 교육(3.31, 250명), 농업인 대상 새해농업교육(3회, 160명), 현장 맞춤형(5회, 371명) 생산단지 설명회(3.11, 250명), 농업인 대상 교육(4.29, 205명), 컨설턴트 대상 교육(5.13, 67명)

** 가루쌀 생산 신규단지(29개소), 전년미흡단지(16개소) 집중기술 지원(5.27~7.15.)

*** 중점관리 : 종자소독, 파종량, 적기 파종이앙, 재식거리, 병해충 방제, 논물관리 준수 여부

□ 가루쌀 수요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제품개발 및 홍보 강화

- 가루쌀 활용 제품화 패키지*, 제분 가공비용** 지원으로 가루쌀 사용량 및 매출액*** 증가 등 식품·외식업 시장 외연 지속 확대

* (제품화) '24) 식품·외식기업 30개소 / 신제품 127종 개발·출시 → '25) 29개소 / 204종 (외식소비) ('24) 베이커리 30개소 / 신제품 595종 개발·출시 → '25) 100개소 / 658종

** (가공확대) 가루쌀 가공량 전년 比 41.5% 증가('24. 1,988톤 → '25. 2,815톤)

*** 가루쌀 사용량/매출액: '23) 46톤/147억원 → '24) 550/800 → '25) 1,096/1,053

- 지자체, 외식업체, 농협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산물 활용, 자체 특화된 제품을 개발*하고, 기관간 협업을 통한 판촉·홍보 운영

* (자자체) 해남군 가루쌀 고구마 활용 빵베이글 개발 / 평택시 가루쌀 쌀 활용 발효빵 라이스 시럽 개발
(농협) 가루쌀 활용 3개 품목(쌀국수, 쌀과자, 미숫가루) 개발 및 판매

2 국내·외 수요기반 확대

[1] 글루텐프리 인증기업 육성

- 인증 기업·제품 관련 정보 소식지 발간 및 제공, 인증획득 교육 지원
 - 글루텐프리 인증 현황 및 절차, 국내외 동향 등 정보제공* 및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전문인력 육성 교육(연 2회) 등 지원
- * 쌀가공산업 전문매거진(RICE UP LIFE UP) 연 4회
- 신규 글루텐프리 인증 지원을 통해 쌀가공식품 판로 확대 등 경쟁력 강화
 - 쌀가공식품 제조기업 대상 인증 획득에 따른 검사비, 심사비, 컨설팅 등 비용 일부(50%) 지원*으로 글루텐프리 시장 진입 마중물
- * 5개사 18개 제품(곡류가공류 12, 즉석식품류 4, 스낵류 2) 글루텐프리 인증 획득
- 국내 주요 박람회 홍보, 국제기준(ISO) 인증 절차 고도화 등 인지도 제고
 - 한국글루텐프리인증 우수 제품(20개) 전시·홍보*, 국제기준(ISO) 기반 인증업무 절차 개선점** 도출하여 인증 업무규정 개정 등 신뢰성 강화
- * 쌀가공식품산업대전(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연계) 내 홍보관 운영(6.10~13./경기 킨텍스)
- ** ISO17065 요구사항에 따른 인증 공정성, 운영자원 적격성, 품질경영시스템 등 개선안 마련

[2] K-Food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

- 글로벌 한류 확산과 간편·건강식 수요 증가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수출 유망 쌀가공품 발굴하고 현지 유통·홍보·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
- (미국) K-콘텐츠(뮤지컬), 한인학교 연계 쌀가공품(김밥, 주먹밥) 홍보·마케팅*을 통해 현지 소비자 인지도 및 소비 저변 확대 유도
- * 미래세대 어린이 대상 김밥 만들기 쿠킹클래스('25.9월, 뉴욕), K-뮤지컬 공연장 관람객 대상 김밥·주먹밥 핑거푸드 체험('25.12월, 뉴욕) 등 홍보

- (아세안) 영유아박람회, 영화제, 스포츠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유아용 쌀과자, 쌀음료, 떡볶이 등 **홍보*** 추진으로 잠재 소비층 발굴
 - * (베트남 K-food Fair) 홍보(2일간) 결과 94천여명 방문 및 현장판매 20백만원 달성 (말레이시아 할랄 전시회) 쌀가공식품(65개) 전사·시식 홍보 및 바이어 상담(4,648천USD)
- (EU) 한류 연계 마케팅으로 MZ세대 집중 공략, 현지 수요 반영한 간편식(냉동김밥, 주먹밥 등) 소개* 및 대형유통업체** 연계 판촉 추진
 - * 현지 인플루언서(SNS) 협업, 제품소개 및 레시피 등 관련 콘텐츠 제작·확산
 - ** 파리_루끌레르, 까루프 매장 370여개(25.10월)에서 냉동김밥 등 판촉행사
- (공통) 넷플릭스 등 OTT, 유튜브 활용, K-쌀가공식품의 우수성과 비건·저칼로리 등 글로벌 식품 트렌드 맞춰 유망제품 발굴·홍보*
 - * 떡 떡볶이 떡꼬치(미국, 유럽), 비건김밥(미국), 막걸리(일본) 판촉지원 수출실적 전년대비 42.3% 증가
- K-콘텐츠 인기 활용하여 관계부처 합동 B2B 홍보, B2C 상담 신규 지원 등 국내·외 박람회 개최로 쌀가공품 신규시장 진출 기반 조성
 - 쌀가공식품산업대전(RICESHOW) 등 박람회*에서 쌀가공품 우수성 홍보, 맞춤형 바이어 상담으로 국내·외 판로 확보 및 계약 체결**
 - * (국내) 쌀가공식품산업대전(25.6.10.~13./일산 킨텍스), KOTRA 수출붐업코리아(25.10.21.~22, 일산 킨텍스) / (국외) UAE K-박람회(25.11.15.~18,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)
 - ** 계약건수: 64건(수출 37건, 내수 27건) / 계약액 : 18억원
- 쌀가공식품 수출협의회 통한 수출 전용상품 개발, 판촉행사 등 공동 마케팅 운영과 수출 업무협약 체결, 해외 트렌드 등 맞춤형 정보제공
 - 유럽 최대 주류 전문 B2B 박람회 공동홍보관, 해외판촉 제품 네이밍 및 로고·포장 디자인 개발, 할랄 쌀가공식품관 등 운영*·홍보
 - * (독일) Provine 주류 박람회(25.3.16.~18.), (중국) 2025 SIAL CHINA(25.5.19.~21.), (말레이시아) 쿠알라룸푸르 할랄 전시회(25.9.17.~20.)
 - 주요 쌀가공품* 수출 시 복잡한 중국 GACC** 등록 과정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 쌀가공업체의 업무처리 간소화 및 등록비용 경감 지원

* 수출품목: 떡볶이, 쌀과자, 가공밥, 막걸리, 청주, 선식 등 150개 제품(40개사)

** GACC 수출을 위해 수출 쌀가공업체가 중국 관세청에 라벨링, 수출자, 품목 등 등록하는 절차

- 수출기업 대상으로 쌀가공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소비트렌드 및 이슈, 수출 전략 및 방향 등 맞춤형 정보조사 보고서* 제공

* 떡볶이, 탁주, 떡 등 수출기업(9개사) 5개국(미국, 독일, 일본, 태국, 네덜란드) 정보분석 자료

[3] 소비자 구매 접점 · 경험 증대

- 건강한 식습관 교육과 연계한 우수한 쌀가공식품 제공으로 미래세대(유아, 어린이, 청년 등) 대상 교육·체험·소비 접점 기회 제공

- 유아·어린이 대상 우수한 쌀가공식품 교육 및 시식, 체험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쌀체험·홍보관, 쌀맛나는 학교 운영 지원*

* 쌀 체험·홍보관: 쌀·쌀가공식품 체험 연간 27,000명 이상 방문 등

쌀맛나는 학교: 초등학교 71개교 / 16,968명 쌀·쌀가공식품 체험 등

-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 중심으로 천원의 아침밥*을 지원하여 간편식(쌀샌드위치, 쌀빵 등), 간식(떡, 쌀과자 등) 등 소비 유도

* 천원의 아침밥(474만식← 대학생 469, 산단근로자 5) 제공 시 쌀가공식품 활용

- 쌀·쌀가공품 인식 제고와 우수성 확산을 위해 생산자단체·유관기관·소비자가 교류·소통하는 다양한 마케팅*, 행사·박람회** 연계 운영

* 백설기 데이(3.14.), 쌀의 날(8.18.), 가래떡 데이(11.11.) 등

**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(9.25.~28.), 2025 우리쌀 한마당(11.7.~9.),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(11.1.~3.), 2025 전국쌀대축제(11.19.~20.), 2025 K-라이스페스타(11.28.~30.)

- 방한 일본인 등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쌀 소비촉진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쌀·쌀가공식품 판매·홍보관을 공항내 팝업스토어* 설치·운영

** 김포공항 팝업스토어 내 쌀·쌀가공품 38종 홍보 / 일 평균 8건 이상 판매

3 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로 경쟁력 제고

[1-1] 원료 공급체계 강화 :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

- 쌀가공산업 성장과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기에 가공용 쌀 공급
 - 당초 업체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340천톤 결정했으나, 물가 상승, 원료곡 수급 난항 등 가공업계 추가 수요 고려, 최대 50천톤 추가 공급*
 - * 정부양곡 가공용 공급계획: 당초 340천톤 → 변경 384천톤
 - 정부양곡 가공용 사용실적: '24) 354천톤 → '25) 382천톤
 - 쌀가공산업 시장 규모 등 성장세에 따라 정부양곡 원료곡 수요 증가에 맞춰 민간신곡 사용도 전년대비 52천톤(+18.4%) 증가
 - * 민간신곡 사용실적: '24) 282천톤 → '25) 334천톤
- 가공용쌀 품질 개선을 위해 정부양곡 도정공장 시설 기준 강화
 -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이물질 제거 능력 개선을 위해 이물 선별 관련 설비(색채 선별기, 석발기, 금속검출기 등) 기준 신규 도입*
 - * 「정부관리양곡 도급계약 체결요령」 개정('25.3월)
- 가공용 쌀 수요 취합·배정하여 적기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, 가공용 쌀 품질 민원 관련 합동(농관원·지자체·쌀가공협회) 대응으로 불편사항 개선*
 - * 민원접수 55건(도정 28, 보관 9, 기타 18) / 민원처리 55건(교환 15, 재선별 3, 기타 10, 해당없음 27)

[1-2] 원료 공급체계 강화 : 민간 가공용 쌀 생산·유통 촉진

- 가공적성에 맞는 특화된 신품종 육성·공급을 통해 산업화 기반 마련
 - 증류주용 적성(향, 맛)에 맞춰 우수 신품종*(주향미, 화연)을 식품기업(하이트진로, 화요)과 협업하여 프리미엄 전통주 기초 마련
 - * 주향미: 증류주 적성시험 완료, 산업체(하이트진로) 연계 강원도 홍천 14톤 계약재배
 - 화연: 발효 적성 평가 실시 및 산업체(화요) 연계 증류주 적성 평가중

- **가공용 쌀(찰벼, 장립종벼)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생산단지-RPC-식품가공기업을 연계***하여 가공용 쌀 생산과 공급 추진

* 찰벼: 익산 명천 RPC '미르찰'^{100ha} 등 생산 → 쿠팡 '찹쌀가루' 등 공급
장립종벼: 해남(땅끝황토친환경영농법인) 재배단지 조성 등 생산 → CJ제일제당 등 공급

- **한국형 인디카 쌀 재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기업,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장립종 시범단지(100ha) 내 대표 품종 재배 추진**

- 국내 기후 적합도, 국내 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·개량된 대표 품종*에 대한 집중 시범재배 실시 및 백미 기준 420톤 생산

* CJ제일, IPS, 바스마티 등

- **한국형 인디카 우량 계통선발, 실증재배 등 장립종 쌀의 국산화 기초 마련**

- 국내 적응 인디카형 장립종 재배 안정성 강화 계통 등 선발* 및 고세대 장립계통(YR31424 등 4계통) 대상 현장(전남 해남) 실증재배로 적응성 확인

* (유망계통) 향미(밀양452호, 453호), 가공용 다수성(밀양454호, 660kg/10a) 우수 계통(재배안정성) 복합내병성(밀양437호, 439호) 강화 계통

- 식품기업 등 연계하여 가공적성 평가*, 제품화를 위한 핵심 품질 지표(강도, 가공안정성 등) DB구축, 국내외 시장 경쟁력 분석 완료

* CJ제일제당 협업을 통해 레토르트 및 HMR 원료곡 적합성 평가 실시

- **품목별 가공적성에 맞는 맞춤형 가공용 계통과 수량성·재배안정성 등이 개선된 가루쌀 계통 육성, 보급종 종자 생산·공급 체계 운영**

- 가공적성이 우수한 가공용 품종 '밀양413호', '밀양432호' 개발*

* 밀양413호: 가공밥용, 복합내병성, 초형 양호, 초다수성(773kg/10a)
밀양432호: 기능성뷰티소재, 고아밀로스 흑미, 중만생, 다수성(611kg/10a)

- 내수발아 및 수량성 개선한 가루쌀 '바로미4' 신품종 개발*과 '바로미2' 보급종자 생산 및 공급 지속 운영

* 바로미4: 고온육묘 적합, 수발아와 도복에 강함, 바로미2 대비 수량성 10% 증가
바로미2: 가루쌀 재배면적 조정으로 보급종 생산량 조정·공급(24.740톤 → '25.560톤)

[2] 시설 · 경영 개선 지원

- 쌀가공업체 시설·개보수·운영·수매자금,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 업체 시설·개보수자금을 융자지원*으로 쌀가공산업 성장 기반 마련

* 쌀가공업체 22개소 선정, 13개소 융자(122억원) 지원
정부양곡 도정업체 30개소 선정, 20개소 융자(70억원) 지원

- 쌀가공식품 제조기업·산업관계자 대상으로 원료구매부터 상품기획, 관리·생산, 홍보·수출 등 쌀가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* 지원

* 원료구매·상품기획(4회, 169명), 식품 품질관리·생산성 개선(2회, 30명), 맞춤형 브랜딩·홍보(2회, 29명), 수출·해외 마케팅 실무(1회, 15명), 글루텐프리식품인증 실무(2회, 20명)

- 쌀가공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HACCP 인증, 포장디자인 등 식품 위생안전 및 품질 분야 컨설팅*(심층, 일반) 지원

* 심층(3~6개월): HACCP 4건, 디자인 2건 / 일반(현장코칭) HACCP 5건, 품질인증 1건, 판로개척 1건

[3] 10대 산업 혁신기술 R&D 추진

- 가공용쌀, 가루쌀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기능성 강화 등 가공 기술개발과 유통기한 제고 등 품질 관리 및 제품화 확산 지원

- 저혈당 등 건강 기능성 성분 연구개발*과 제품화 확산** 및 연구자 간 쌀가공산업 지식공유 워크숍 개최로 우수성과*** 도출

* 도담쌀 발아현미 선식 제조방법 특허2건, 저항전분(식이섬유) 증가 선식 등 기술이전 15건

** 수입산 저당곡물 대체 도담 위고미, 도담쌀 고단백 계란맛 쌀국수 2건 제품화

*** 제품화 9건, 매출액 약 13억원 달성 / 특허출원·등록 21건, SCI급 논문 29건 등

- 가루쌀 최적 저장조건 및 쌀가루 산화억제를 위한 유통기한* 설정, 가루쌀 활용**을 위한 부침가루, 제과 및 제빵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

* 가루쌀: 종자용 저온(15°C이하) 20개월, 가공용 저온 24개월 / 쌀가루: 10°C 11~14개월

** 가루쌀 100% 활용: 부침가루, 카스테라, 쿠키 / 10~20% 활용: 바케트, 식빵, 단과자빵 등

- 쌀가공 기술 민간이전 활성화와 현장 확산을 위해 기술이전 중개 및 간담회, 기술자료집 발간 및 설명회 개최, 시제품 제작 등 지원*

* (기술이전) 국유·민간 R&D 성과 기술 117건 중개, 식품기술이전 간담회 2건
(기술자료) 쌀가공기술(127건) 자료집 발간·배포, 2025 유망 쌀가공 기술설명회 등 8회

[4] 정확한 통계 · 정보 제공

- 쌀가공 산업정보, 통계, 업계 이슈 등의 정보제공을 위해 쌀가공식품 제조업 실태조사*, 정기간행물 발행**, SNS 채널*** 활용 등 운영

* 조사항목: 종사자 수(고용형태별·연령별·성별 등), 쌀 구입량, 품목별 매출액 등

** 정기간행물(Rice UP, Life UP) 분기별 4회 발행 및 각 발간호당 4,000부 배포

*** 미소공간: 유튜브, 인스타그램 등 통해 쌀 인식제고, 우수한 쌀·쌀가공품 홍보 등

-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‘쌀가공식품제조업 실태조사’는 타 유사 조사(양곡소비량 조사) 공표 내용 혼선방지를 위해 최종 공표 조정* 시행

* 공표기간: 쌀가공식품제조업실태조사(매년 2월), 양곡소비량조사(매년 1월)

<참고> 2024년 기준 쌀가공식품제조업 실태조사 결과(요약)

- ① (사업체 수) 총사업체 수는 14,737개사,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 99.3% 차지
- ② (종사자) 쌀가공식품 종사자 86,890명(식품제조업 64,827명, 즉석판매제조업 22,063명)
- ③ (판매액) 쌀가공식품 매출액 8조 3,598억원(식품제조업 7조 4,117억원, 즉석판매제조업 9,481억원)
- ④ (원료구입량) 총 원료구입량은 쌀 640,767톤, 쌀가루 65,851톤

Ⅲ. 보완 필요 주요사항

- 사업별 추진 시기 지남, 예산 수반 과제에 대한 예산 미반영, 쌀 가공산업의 정책적 환경 변화 등으로 추진과제별 적기 추진 미흡
⇒ 과제별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, 신규사업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, 예산 미반영 시 정책적 대안 수립 등 신속한 추진 필요
- 기존 개발한 기능성 쌀 품종의 도열병 취약 등 재배 안정성 약화 및 거친 식감 등 소비자 기호도 저하로 프리미엄화 저해
⇒ 기능성 쌀 원료곡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 수요 연계 고려, 복합 내병성, 가공적성 개선 등 기능성 육종 소재 발굴 강화
- 다수확·수입 쌀에서 고품질 쌀 전환을 위한 홍보 부재, 산업화와 연계한 쌀가공 유망품목에 국산쌀 사용 미흡 등 활성화 한계
⇒ 고품질 국산쌀 사용 촉진을 위해 소비자선호 고품질 품종 선정·홍보 강화, 우수 쌀가공품 내 원료곡 비중 설정 등 마련 필요
- 가루쌀 늦이앙, 파종 권장시기 미준수 문제, 품종특성 등 고려한 안정적 재배 매뉴얼 보완 시급 및 신속한 교육지원 필요
⇒ 가루쌀 안정적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 매뉴얼 보급과 지역별 적정이앙 시기 교육 등 현장기술 지도 강화
- 제품개발 위주 사업, 제품의 가루쌀 원료 표시 미흡 등으로 가루쌀 제품 소비자 인지도 미흡으로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한계
⇒ 제품 원재료의 가루쌀 비중 표시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이벤트·행사 연계,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홍보·판촉 강화
- 글루텐프리 제품의 국내외 시장 동향 등 정보제공 미흡, 홍보·판촉 부족 등 대외 인지도 한계로 글루텐프리 인증 신뢰도 저하

⇒ 글루텐프리 정보 소식지 발간 확대, 인증 우수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, 국제기준에 맞는 심사 등 운영체계 개선 검토

□ 가공용 쌀은 정부양곡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가공 산업의 자생적인 원료 조달 기반이 취약하여 안정적인 공급 미약

⇒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적정 수준의 가공용 쌀 공급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쌀 원료 공급체계 구축 필요

□ 국산 장립종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규모 채종 체계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보완 등 산업화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미흡

⇒ 국산 장립종 유망계통 품종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와 가공식품 기업 연계한 시제품 개발 지원, 보급종 생산기반 확보 추진

□ 미래 가공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를 고려한 현장 맞춤형 판매·수출 전략 등 컨설팅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저조

⇒ 쌀가공업체의 식품 품질, 위생 등 역량 제고와 쌀가공산업 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수시 컨설팅 지원 확대 및 심화교육 강화

□ 생쌀발효, 상온유통, 가공쌀 분산성 향상 등 주요 가공 기술은 실증되었으나 제품화 및 소비시장 확장 단계로의 전환이 제한적

⇒ 쌀 가공업체의 이용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의 R&D 협력 강화와 가공기술 이전을 통해 제품의 사업화 기반 마련 필요

□ 쌀가공산업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‘쌀가공산업실태조사’ 시 조사 응답률 저조로 신뢰도 저하 및 일반적 분석으로 활용도 한계

⇒ 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받는 가공기업에 한해 조사 참여 의무 부여 및 품목별 심층분석 강화 등 방안 검토

IV.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

1 미래 유망분야 집중 육성으로 성장동력 마련

[1] 쌀가공산업 유망품목 집중 육성

- 산업화 등 시장 수요에 기반한 건강 기능성 쌀 사용 시제품 개발과 기능성 육종 소재 발굴을 강화하고 고품질 쌀 사용 전환 유도
 -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품종(죽류)* 개발,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기능성 육종 소재 발굴** 및 산업화 추진 (농진청)
 - * 밀양 436호 등 죽류 유망계통의 가공적성 정밀 분석 및 평가
 - ** 복합내병성, 식감개선, 저혈당 헬스케어 등 용도별 기능성 품종 개발
 - 제품에 사용되는 다수확 쌀, 수입쌀을 고품질 쌀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보급종을 선정*하고 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 홍보·확산** (농정원)
 - * 국민전문가 평가(맛, 향, 외관, 조식감, 종합품질)를 거쳐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선정
 - ** 방송 매체를 통한 다큐멘터리(2~3부작) 제작 및 송출
- 최신 가공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춰 쌀가공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행사, 박람회 등과 연계한 특화된 홍보·마케팅 강화
 - 국내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유망 쌀가공제품을 개발*하고, 유관 기관 협력, 박람회, 행사 등 연계**등 수출 홍보·판로 지원 (농협, aT)
 - * 5대 품목(떡류, 스낵, 간편식, 음료, 가루쌀) 상품 개발, 농협 내 쌀가공품 전용매대 설치 확대, 수출 전략 쌀가공품(전통주, 간편죽, 떡볶이떡 등) 발굴·마케팅 등
 - ** 쌀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소비자 대상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 추진
 - 우수한 쌀가공품 선정을 위한 평가·시상(훈격)을 개선*하고, 국내·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쌀가공식품산업대전과 통합** 운영 (쌀가공식품협회)
 - * 제품 원료곡 국산 비중 반영 평가, 최우수 쌀가공품 훈격(장관상→총리상) 상향 수여 등
 - ** 쌀가공품평회(사전행사)+쌀가공식품산업대전(본행사), 생산자단체 행사 등 연계(통합) 운영

<참고> 쌀플러스스 브랜드 개요

- (개요) 품평회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스타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우수 쌀가공품 대표브랜드
- (인지도) 입상작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전으로 자리매김, 로고 취득을 위해 대기업에서 품평회 참여도 활발
- (대표상품) 딸기크림떡((주)더바른컴퍼니), 바삭칩(CJ제일제당), 저당유부초밥(복을만드는사람들(주)), 성주 황금 꿀참외떡((주) 요푸릇) 등



쌀플러스스 로고

- 천원의 아침밥을 대학생에서 산단근로자까지 추가·확대* 지원, 지자체·기업 등 참여** 활성화로 우수한 쌀·쌀가공식품 소비*** 유도 (농정원)

* '25) 연간 450만식(대학교) → '26) 연간 630만 식(대학교+산단기업)

** 지자체, ESG 실천기업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 산단·대학에 보조·기부(현금, 현물) 매칭

*** 아침식사로 쌀 간편 컵밥, 레토르트밥, 누룽지탕, 영양찰떡 등 쌀가공식품 소비 확대

[2]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

- 시장 수요에 맞게 가루쌀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현장기술 지원 강화 (농진청, 전략작물육성팀)

- 가루쌀 소비 추세 고려, 원료의 재배·매입 규모를 적정* 유지하고, 지역별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중앙-지방-민간 협업 현장기술** 지원

* 가루쌀 재배면적/매입규모: '25) 9.8천ha/4.8만톤 → '26p) 8.0천ha/3.9만톤

** 재배기술(적기파종·육묘·이앙) 등 매뉴얼 준수, 성공실패 사례(고온직파·과바·도복) 중심 교육

- 가루쌀 원료 사용량 확대, 신제품 개발·출시 등 활성화를 위한 제품화 패키지와 가공확대 지원 등 지속 추진 (전략작물육성팀, aT)

- 제품화패키지 지원 시 원재료 내 가루쌀 비중 10% 이상 포함하여 사용량을 확대하고, 제품의 홍보·판촉* 강화로 인지도 제고

* 제과협회 협업을 통한 베이커리 페어 추진, 지역 내 베이커리점 연계 빵지 순례, 팝업스토어 운영, 유통매장 할인지원, TV·SNS 미디어 홍보 등 실질 수요 창출

- 가루쌀 제분원료 전환에 따른 제분·가공업체 추가 발생 비용(정비,

물류 등)을 지원(20만원/톤)하여 가루쌀 가공 물량 공급 확대*

* 가루쌀 가공량 물량 지원 확대: '25) 2,815톤 → '26p) 4,000톤 이상

2 국내·외 수요기반 확대

[1] 글루텐프리 인증기업 육성

- 글루텐프리 국내외 시장 동향 등 정보제공* 및 인증심사 가이드 제작, 인증 우수제품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·판촉** 강화 (쌀가공식품협회, aN)

* 전문매거진(RICE UP LIFE UP) 배포(연 4회), KRFA 소식지 매월 정보제공

** 신규우수 인증기업 기획기사, SNS 등 홍보, 국내외 박람회 내 특화 홍보관 운영판로 확보 등

- 신규기업* 위주 인증비 지원 강화, 인증 갱신 비용 수익기업 부담 조정 등 운영 효율화**를 통해 인증기업 육성 확대 (쌀가공식품협회)

* '25) 신규 인증기업 5개사(인증제품 21개) → '26p) 10개사 이상(인증제품 40개 이상)

** 등록비, 로고사용비 등 최초 갱신 심사비 조정, 수익자부담에 따른 수행기관 자부담 추가

-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(ISO)에 따른 운영체계 및 심사기술 개선* 등 KOLAS(한국인정기구)** 등록을 위한 기반 마련 (쌀가공식품협회)

*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인증 절차, 심사 등 고도화 및 신뢰성 기반 마련

**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/IEC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, 교정, 검사, 관리 등 기관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신력을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정 체계

<참고> 글루텐프리식품 인증 개요

- (표준명) 글루텐프리식품 단체표준(SPS-H KRFA-7426)
- (개시일) 2022. 10. 1
- (인증기관) (사)한국쌀가공식품협회
- (적합기준) 글루텐 함량 20mg/kg(20ppm) 이하
- (인증등록 현황)
 - 25개사 130개 제품 인증 발급('25.12월 기준)
 - * 스낵류 37, 곡류가공류 32, 떡류 20, 면류 11, 장류 9, 빵류 8, 쌀가루 등 기타 13
 - CJ, 롯데웰푸드, 하림, 풀무원 제품등 인증 획득



한국 글루텐프리
인증 로고

[2] K-Food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

- K-콘텐츠 바이럴 효과 활용한 홍보·마케팅 차별화로 일상에서의 소비 기능 확대 등 권역별 맞춤형 쌀가공품 수출 운영으로 실적 제고* (aT)

* 쌀가공식품 수출(백만불) : ('22) 182 → ('23) 217 → ('24) 300 → ('25) 279 → ('26p) 300 이상

- (미국) K-pop 등 한류 행사, 스포츠를 연계한 K-라이프 스타일 홍보 마케팅을 통해 현지 밀착형 홍보 및 체험으로 인지도 제고

* 美 서부 최대 히스패닉 마켓 협업하여 2026 북중미 월드컵 연계 K-Food Fiesta 개최, 한류 관심도 높은 현지 히스패닉 커뮤니티 대상 마켓테스트 및 입점 확대('26.6.)

- (일본) 최근 가성비에서 시성비(시간 대비 성능비) 선호 문화 확산과 함께 간편식(HMR) 수요 증가로 주요 도시 유통매장 판촉 행사* 강화

* 오사카 등 주요 도시 유통매장 내 죽, 떡볶이 등 간편식 시음·시식 행사 확대

- (아세안) 인플루언서 연계한 K-할랄푸드 홍보, 무슬림 소비자 타겟층 대상 시식 강화, 쌀가공품 콘텐츠 확산 등 할랄시장 진출 확대

* 라마단 기간 무슬림 MZ 소비자 대상 할랄 인증 쌀가공식품 집중 홍보(말련/'26.3)

* 베트남 대형 K-POP(WATERBOMB HANOI 2026) 행사 연계 홍보판매부스 운영(베트남 하노이/'26.6)

* SNS 플랫폼 활용 K-할랄 쌀가공품(떡볶이 등) 리뷰 등 콘텐츠 확산(인니/'26.10)

- (공통) 관계부처^{농식품부·문체부·해수부·중기부} 합동으로 운영하는 한류 드라마·예능 등 K-콘텐츠의 글로벌 파급력을 활용한 쌀가공식품 홍보·판촉* 지원

* 유튜브 등 활용 간접광고 제작 및 송출, 해외 온라인 판촉 및 미디어 홍보 등 지원

- 쌀가공식품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운영으로 대내외 수출 환경 변화, 품목별 이슈·애로사항 등에 적기 대응 추진 (aT, 쌀가공식품협회)

- 기존 시장의 신규 품목 진입과 신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판촉행사, 마켓테스트, 박람회 참가 등 온·오프라인 마케팅 지원* 강화

* 중국 SIAL 식품박람회 특별홍보관 운영, 할랄문화권 현지마켓 시식행사, 쌀가공산업 대전(RICESHOW) B2B·B2C 상담, K-쌀가공식품 공동브랜드(KOREECIPE) 활용 판촉 등

<참고> 공동브랜드 'KORECIPE' 개요

- (추진배경) 쌀가공식품 기업의 개별 브랜드만으로 해외 바이어 신뢰 확보 및 유통채널 진입 한계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통합브랜드 개발
- (공동브랜드명) KORECIPE
- (도입연도) 2022년
- (공동브랜드 적용 현황) 29종 제품 / 13개사

korécipe
The Best Choice for Me

공동브랜드 BI

-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쌀가공식품 수용성 검증을 위한 샘플 테스트 지원과 현지 유통·가격 정보 등 시장조사 등 맞춤형 정보* 제공 (aT)

*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조사 보고서 5건 내외, 국가별 수출이슈 조사 보고서 3건 내외

[3] 소비자 구매 접점 · 경험 증대

- 어린이·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한 쌀가공식품 체험기회 제공과 온·오프라인 박람회, 행사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 홍보 접점 확대
- 쌀·쌀가공식품 체험교육*, 쌀가공식품 소비 연계 아침밥 지원** 등을 통해 쌀 소비 중요성 증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 유도 (농정원)
 - * 쌀맛나는 학교: 초등학생 대상 쌀 중심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
 - ** 천원의 아침밥: 대학생, 산단근로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연계 쌀가공식품 소비 유도
- 쌀가공식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우수한 쌀가공식품 선정하여 홍보·체험 공간 조성 및 온라인 판촉 플랫폼 구축 등 운영* (쌀가공식품협회)
 - * 쌀가공산업대전(RICESHOW) 내 특화 홍보관 운영 및 온라인몰 판매 기획전 등 연계
- 지자체·유관기관·기업·생산자 간 공동 쌀가공식품 홍보·마케팅 협업을 통해 쌀 소비 활성화 및 쌀 식습관 건강 인식 제고 지원
- 유관기관* 협력, 스포츠·데이 마케팅** 활용, 찾아가는 행복米밥차 운영으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및 참여 확산 (농협)

- * 대한체육회, 대한영양사협회 등 쌀 소비촉진 MOU 既체결 기관 협력 지속
- ** KLPGA 투어 연계, 백설기데이(3.14.), 쌀의 날(8.14.), 가래떡데이(11.11.)

○ 쌀·쌀가공품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소통* 강화, 민간·유관기관과 연계한 쌀가공품 행사, 팝업스토어 등 지원** 확대 (농정원, 농협)

- * 대한민국농업박람회, 전국쌀대축제,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, 우리쌀한마당 등
- ** K-라이스페스타, 인천·김포공항 내 팝업스토어 운영

3 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로 경쟁력 제고

[1-1] 원료 공급체계 강화 :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

- 원료의 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공급계획과 민간재고 상황 등 고려하여 가공업체별 공급계획 수립 및 운영 (식량정책과)
 - * ① 사전 수요조사(10월~, 쌀가공식품협회) → ② 정부양곡 공급계획 수립(12월 초, 식량정책과) → ③ 수요 조정 → ④ 업체별 공급 세부계획 수립(12월, 쌀가공식품협회)
- ‘정부양곡통합정보시스템’, ‘가공용 쌀 수급 관리시스템’을 통해 정부양곡 입출고 및 공급 상황, 품질관리 등 상시 모니터링 강화 (식량정책과)
 - 농관원·지자체·수탁기관(한국쌀가공식품협회)은 매월 수급현황 파악* 및 분기별 취약 도정공장 현장점검 실시로 선제적 민원 대응
 - * 정부양곡 용도별 배정량, 원료 수불 대장 및 생산 판매 현황 등 입력·관리
- 정부 의존도 완화 및 시중 쌀 사용 유도를 위한 가공용 정부양곡 단계별 감축 계획*에 따라 342천톤(가루쌀 2천톤 포함) 공급 (식량정책과)
 - * 가공용 쌀 공급량(가루쌀 미포함) 계획 : (‘24) 350천톤 → (‘29목표) 310
- 단, 수급 재전망 및 가공용 쌀 소비량 증가 추세, 쌀가공업체 현장 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양곡 공급 탄력적으로 운영

[1-2] 원료 공급체계 강화 : 민간 가공용 쌀 생산·유통 촉진

□ 품목별 가공적성에 맞는 품종개발 및 육성과 생산단지-RPC-가공 기업 연계한 계약재배 지원으로 민간 신곡 조달 체계 구축

○ 가공 용도별 가공적성 평가 실시 및 쌀가공업체 연계한 산업화* 지원과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** 확대 지원 (농진청)

* 금강1호, 화연 등 유망 계통의 발효 적성평가 → 화요 등 기업 협업 산업화 검토

** 기업(하이트진로) 연계 주향미 홍보 등 MOU 체결, 계약재배 확대 유도

○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제한하는 수급조절용 벼* 도입 운영 및 계약재배 통해 민간 가공용 공급체계 시범 마련 (식량산업과)

*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사전격리하고, 홍작 등 공급 부족 전망 시 신속하게 밥쌀용으로 전환하여 수급안정 기능 수행

<참고> '수급조절용 벼' 생산·유통 체계



□ RPC 내 지역 대표 품종과 연계한 쌀가공식품 개발을 유도해 민간 신곡 중심의 가공용쌀 소비 활성화 추진 (식량산업과)

○ 자체적으로 쌀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해 판매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별 식품 가공 시설·장비* 설치 유도(기여도 평가 가점 부여 등)

* 제분·세척기, 증숙·성형기, 냉각·건조기, 포장기 등

□ 국산 장립종 유망계통 품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가공식품 기업 연계한 시제품 개발, 채종단지 구축 등 산업화 기반 마련 (농진청)

- 유망품종 출원을 위한 **우량계통 지역적응**(밀양437호·439호)을 실증하고 **식물 특허출원**(밀양452호·454호)을 위한 시험 추진
- 즉석밥·간편식(HMR)·레토르트 등 **시제품**(밀양452호·454호) 개발 및 시식 체험, 만족 등 소비자 수용도 조사 및 인지도* 제고 홍보
 - * 장립종 벼 재배 및 활용 홍보영상 제작유포, 지역축제,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시식 체험 등 홍보
- 원료곡 **채종단지**(0.6ha, 전남 해남) 구축으로 안정적인 보급종 생산 기반 확보 및 기술확산을 위한 **가공업체·농업인 대상 현장실증**
- **가공용쌀 소비확대를 위해 개발한 품종 이용성 증진과 가루쌀 신품종 조기 보급 및 용도별 적합 우량계통 육성 추진 (농진청)**
 - 선발된 품종 이용성 증진을 위해 **가공밥용**(밀양413호), **기능성뷰티용**(밀양432호) 등 산업체 연계 **가공적성 평가** 추진
 - 가루쌀 신품종 ‘**바로미4**’ 보급 촉진을 위해 **국립종자원** 협업과 생산단지 조성 등 **시범사업*** 추진으로 생산단계 단축(4년→3년)
 - * (생산단지 규모) 5개소, 개소당 20ha / (예상 생산량) 550톤
 -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도입 등 **재배 안정성 강화**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**가루쌀 가공 용도별 품종 다양화*** 개발 추진
 - * 통곡 가루용(흑미), 아밀로스 저(찰성)·고(제면용) 도입 우량계통 선정

[2] 시설·경영 개선 지원

- 미래 유망 쌀가공품목 집중 육성을 위해 잠재력 있는 쌀가공업체에 시설 증축·개보수, 운영·수매자금 등 **융자 지원 (식량산업과)**
- **10대 유망*** 쌀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기업 등에 우선지원
 - * 간편 가공밥·죽, 도시락·김밥, 떡볶이, 냉동떡, 쌀증류주, 쌀음료, 쌀국수, 혼합면, 쌀빵, 쌀과자

- 쌀가공업체 경영안정 등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사업자 조기 선정, 예비사업자 지정, 매월 집행상황 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
- 쌀가공업체의 식품 품질, 위생 역량 제고를 위해 심층컨설팅 지속 추진하고, 수시 현장 대응을 높이고자 단기 컨설팅* 지원 확대 (aT)
 - * 쌀가공업체 운영 개선을 위해 현장컨설팅 1회에서 최대 5회까지 확대 지원
- 쌀가공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 고려, 고부가가치 제품전략 등 전문인력 심화교육* 운영 (쌀가공식품협회)
 - * '25) 원료구매·제품기획, 품질관리·홍보, 수출마케팅 등 기본교육 → '26) 민간신곡 구매 활용 및 고부가가치 제품전략, 바이어 상담 및 국가별 수출 협상 등 심화교육

[3] 10대 산업 혁신기술 R&D 추진

- 쌀가공품 트렌드에 맞춤형된 10대 기술 R&D를 지속 지원하고,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(농진청, 농기평)
- (가공용쌀) 소비자 기호도 기반 품질 기준 도출, 혈당 저감 등 가공 소재 탐색, 국내 장립종의 도정·건조기준 설정 검토 등
- (가루쌀) 발효소재 용도 활용을 위한 산업 적용성 평가를 실시 하고, 가루쌀 맥주·식초 특성 구명 및 품질향상 조건 개발 등
- (K-명주) 국산 쌀 활용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제품화 평가 및 기술 보급, 전통주 표준화를 위한 발효제(누룩) 품질안정화 기술개발 등
- (K-푸드) 쌀 품종별 냉동김밥 품질 구명을 위한 가공적성 평가, 떡 단기 상온유통(냉장 1개월 → 상온 2) 기술 현장적용 및 보급 등
 - * 쌀·콩 이용 확대 및 소재화 기술, 쌀 기반 건강증진용 가공소재 및 식품 소재화 연구, 내수 및 수출 용도별 맞춤형 장립종 품종개발, 가루쌀 맞춤형 수제맥주 등 발효식품 소재 다양화 연구, 소비트렌드 맞춤 양조용 품종 선발 및 활용기술 개발 등 10개 과제

- (상용화) 노화 지연 및 글루텐 대체 소재 쌀가루, 발효 가루쌀, 기능성 쌀겨 등 활용한 실제 제품개발 사업화로 산업기반 마련

* 당지수 저감 쌀가루(가루쌀)를 이용한 미래식품 수요 맞춤형 제품개발 및 산업화, 노화지연 기술을 적용한 쌀가루(가루쌀) 및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, 발효 가루쌀 기반 단백질 고함유 기호식품 개발, 글루텐 대체 소재 및 이용 기술 등 10개 과제

- 쌀 가공기술 현장 확산을 위해 간담회 개최, 기술 홍보·마케팅, 기술 이전 기업 대상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**활성화*** 지원 (농진원)

* 식품기술이전협의체 등 간담회, 현장활용 우수기술 선정·홍보, 설명·박람회 등

<참고> 쌀가공산업 10대 핵심기술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가루쌀 등 가공 전용 품종 | ⑥ 수출 시 품질 유지 기술 개발 |
| ② 쌀의 건강기능성 규명 및 제품 개발 지원 | ⑦ 쌀 활용 주류산업 육성 기술 |
| ③ 가정간편식 제조기술 | ⑧ 쌀 활용 발효물질 개발 및 제품화 |
| ④ 제품별 쌀가루 혼합비율 규명 | ⑨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|
| ⑤ 가루쌀 가공기술 개발 | ⑩ 쌀 부산물 활용 기술 |

[4] 정확한 통계·정보 제공

- 국내외 쌀가공산업 동향, 유망시장 정보 등 분석자료 공유 활성화와 원료곡 수급, 기획·판매 변화 등 품목별 기초자료 DB화 (쌀가공식품협회)

* (당초) 분석보고서 분기별 제공 → (변경) 분석보고서 분기별 제공, 원료곡 가격 동향 월별 제공

- ‘쌀가공산업 실태조사’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 대상 식품기업 참여 유도 방안 강구, 품목별 심층분석 등 조사 강화 (쌀가공식품협회)

- 정부양곡 공급받는 가공기업(양곡매입대상자)에 한해 조사 참여 의무, 품목별 데이터 정합성을 위한 통계전문가 자문 및 심층분석 병행

* (추진일정) 조사수행 업체 선정(‘26.3~4월) → 표본 등 조사설계(5~6월) → 실태조사 실시(7~9월) → 조사결과 정리 및 보완(10~12월) → 분석 및 최종공표(‘27.1~2월)

V. 추진 일정

- ☐ 2026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시행계획 알림(4월)
- ☐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및 분기별 점검(6월~)
- ☐ 과제 추진 주체별 2026년 추진실적 및 2027년 추진계획 제출(~12월)
- ☐ 추진실적 분석 및 보완을 통해 2027년 시행계획(안) 마련('27.1월~)